

李朝末期의 朝日貿易 (1868 - 1894)

金 文 瑄

〈 目 次 〉

- | | |
|-------------------------------|------------------------|
| 一. 序 論 | b. 朝鮮의 開國 |
| 二. 朝日兩國의 開國以前의 貿易과 兩國의 開國의 經緯 | 三. 明治維新부터 淸日戰爭까지의 朝日貿易 |
| 1. 開國以前의 朝日貿易 | 1. 明治維新부터 朝鮮開國까지의 貿易 |
| 2. 開國의 經緯 | 2. 朝鮮開國부터 甲申政變까지의 貿易 |
| a. 日本의 開國 | 3. 甲申政變에서 淸日戰爭까지의 貿易 |
| | 四. 結 論 |

一. 序 論

1968年 前後의 時代는 國際情勢뿐만 아니라 朝日關係 및 兩國의 國內情勢 또한 복잡한 時代였다. 歐美列強은 市場을 찾아서 아시아에 홍수처럼 밀려와서 中國을 비롯하여 朝鮮 및 日本의 開國을 強要했다. 德川幕府 以後 善隣關係에 의하여 維持되어 왔던 朝日의 外交關係는 明治時代의 탄생과 더불어 두절 되었다. 朝日의 外交關係의 回復은 1876年에 이루어 졌다. 그러나 그것은 德川幕府時代와 같은 善隣外交關係가 아니라 日本의 一方的인 강압에 의하여 이루어진 外交關係였다.

日本은 1859年 美國에 의하여 開國을 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은, 1868年 강력한 明治政府가 등장해서 國內외의 여러가지 복잡한 諸問題를 극복하면서 近代産業國家를 指向하고 있었다.

朝鮮은 1864年 高宗이 王位에 即位함에 의하여 高宗의 아버지인 大院君이 實權者로 登場해서 以前부터 채택하고 있던 鎖國政策을 한층 강화시켰다. 그런데 1870年代에 들어와서 생긴 大院君과 閔妃間의 權力鬭爭은 激變하는 國內외의 情勢에 能動的으로 對處하지 못하였으며, 이것이 결국은 韓日합방이라는 大端히 不幸한 事態로 發展하게 되었다.

以上과 같은 情勢下에서 朝日貿易이 어떻게 展開되었으며 그 內容 및 特徵을 살펴보는 것이 本論文의 目的이다.

本論文의 對象期間 以前인 乙酉條約(1609)以後, 日本으로 말하면, 江戸時代의 朝日貿易을 간단히 살필 것이다. 그리고 1868~1876年까지의 朝日貿易은 資料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간단히 說明 할 수 밖에 없었다. 1876~1894年을 二期로 나누어 說明하기로 한다. 그 理由는 朝鮮을 둘러싼 國際情勢에 의하여 朝日貿易이 그 內容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876~1884年까지의 朝鮮의 對外貿易은 日本에 극히 편중되어 있던 時期였으며, 그以後인 1894年까지는 淸의 進出에 의하여 朝鮮의 對外貿易은 淸에 편중되었던 時期이기 때문이다.

1876年以後의 朝日貿易을 가급적 자세히 說明 할려고 했지만 우리나라의 資料가 극히 不足한데다, 比較的 資料를 많이 갖고 있다는 日本側 資料도 不充分한 점이 많아 本論文에 不備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되며, 그 점은 앞으로의 精進을 위한 課題로 삼고져 한다.

二. 朝日兩國의 開國 以前の 貿易과 兩國의 開國의 經緯

1. 開國 以前の 朝日貿易

임진왜란以後 國交가 단절되었던 朝日 兩國은 乙酉條約(1609)에 의하여 國交가 再開 되었다. 그로부터 明治政府가 外交權을 접수 할때까지 兩國의 貿易은 大體로 順調롭게 이루어 졌다. 1639年 德川幕府에 의한 鎖國令이 내려진以後에도 淸 및 「네델란드」와 더불어 朝日兩國의 貿易은 活潑히 이루어 지고 있었다.¹⁾

朝日貿易은 日本側에서는 對馬島主 宗氏가 담당하고 있었다. 貿易의 形式은 官營貿易(封進, 公貿易)과 私貿易 두가지가 있었다. 우선 官營貿易부터 살펴 보면, 封進은 원래 進上이라고 하는 것으로 宗氏가 朝鮮國王에 物品을 헌상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後日 朝鮮國王은 回賜品을 宗氏에게 내려진다. 더욱이 그 品目과 數量이 定해져 있을 뿐만아니라 使船마다에 할당 되어져 있었다. 또한 對馬島主로부터 特定の 品目を 간청해 오면 回賜의 名目으로 그 物品을 내려 주었는데 이것을 求請이라고 하였다. 封進은 말하자면 朝貢인 것이다. 公貿易은 日本側에서 갖어간 物品을 朝鮮政府가 사주는 방식이었다. 이것 또한 品目과 數量이 定해져 있었을 뿐만아니라 使船마다에 할당 되어져 있었다. 私貿易은 貿易品目이나 貿易額에 制約없이 自由로 이루어졌었다. 이 貿易은 倭館에 있는 開市大廳이라는 건물에 朝鮮商人이 物品을 가져 와서 對

1) 「鎖國政策을 取해서 世界의 흐름에 逆行하고 있던 日本은 ... 長崎出島의 一角을 통해 약간의 倭館과 支那二國과 이루어지던 幕府官營貿易 ...」라고해서 朝日間 무역이 없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나(猪谷善一: 貿易史, 文化書房博文社, 昭和53, p.41)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馬藩의 官吏나 商人等과 去來를 했다.²⁾

封進品目 中에서 主要한 것은 胡椒, 明礬, 丹木(蘇木)等 이었으며, 公貿易으로서 主要한 品目은 銅, 錫, 丹木, 黑角(水牛角)等 이었다.³⁾ 反面 朝鮮으로 부터 輸入한 官營貿易의 主要 品目은 米, 公木, 大豆, 人參, 小豆等이 었다.⁴⁾

朝鮮과 對馬島間에 무역이 가장 성행했던 것은 1684~1711年間이 었다. 그 時期의 무역장 부가 日本에 남아 있는데 그것에 依하면, 私貿易에 있어서 對馬島側의 主要한 輸出品目은 銀, 銅, 錫等으로서 鑛産物이 全體의 80~90%를 점하고 있다. 朝鮮으로부터의 私貿易에 있어서 主要한 輸入品目은 人參, 中國産의 生絲, 絹織物等이 大部分을 점하고 있었다. 이 時期의 白絲 輸入量은 6萬斤余로서, 當時 長崎의 白絲輸入高를 잇도는 것이었다.⁵⁾

官營貿易에 있어서는 對馬島가 輸入한 品目은 대개 生活必需品이 었으며, 反面 朝鮮의 輸入 品目은 銅과 錫을 除外하면 奢侈品이었다.

私貿易에서 對馬島는 大阪 京都等地에서 莫大한 利益을 얻을 수 있는 品目を 輸入했으며, 朝鮮商人은 淸의 商人과의 去來에 必要한 銀과 朝鮮後期 언제나 부족하고 있던 銅, 錫等を 輸入 했다. 朝鮮이 對馬島로부터 輸入한 銅의 量은 1634年경 年間 3萬斤, 1693年 4~5萬斤, 1734年경에는 年間 數十萬斤에 達했다.⁶⁾

當時의 貿易品들은 朝鮮과 日本의 産物뿐만 아니라 白絲, 絹織物等の 中國의 産物과 胡椒, 明礬, 丹木, 黑角等 東南亞細亞의 産物까지 去來되었었다. 따라서 이러한 貿易의 이루어졌던 倭館은 실로 國際市場이 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朝鮮과 對馬藩과의 貿易의 성쇠는 朝鮮과 對馬藩의 事情뿐만 아니라 朝鮮과 淸, 日本과 淸 및 荷蘭과의 貿易如何에 따라서 크게 좌우 되었기 때문이다. 朝鮮과 對馬藩과의 무역이 가장 活發히 이루어졌던 1784~1711경에 日本의 對外貿易은 극히 制限되어져 있었으며⁷⁾ 反面 朝鮮과 淸과의 貿易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⁸⁾

以上과 같이 朝鮮과 對馬藩間에 貿易이 活發하게 이루어 진것은 朝鮮보다는 對馬藩쪽이 훨씬 절실한 것이었다. 그것은 石高 2萬石도 되지 않았던 對馬藩의 財源은 朝鮮貿易의 利潤에 依하여 維持되어졌기 때문이다.⁹⁾ 뿐만아니라 對馬藩은 朝鮮과의 貿易에 依해서 莫大한 利益을 을

2) 田代和生: 對馬藩의 倭館貿易, 江戸時代의 朝鮮通信使, 映像文化協會編, 昭和 54年, pp. 86~87 참조.

3) 田代和生: 前掲書, p. 88.

4) 田代和生: 前掲書, p. 89.

5) 田代和生: 前掲書, pp. 90~92 참조.

6) 崔虎鎮: 韓國貨幣小史, 瑞文堂, 1974, pp. 121~122.

7) 渡辺与五郎: 近世日本貿易論의 展開, 文化書房博文社, 昭和 53年, pp. 118~120 참조.

8) 崔虎鎮: 韓國經濟史, 博英社, 1977, p. 180.

9) 田代和生: 前掲書, p. 78.

러 二十万石의 諸侯에 比해서도 余裕가 있을 정도였다.¹⁰⁾ 朝鮮으로서는 貿易보다는 왜구대책의 面이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찌되었던 貿易量의 增減은 있었다 하더라도 乙酉條約 以後의 朝鮮과 對馬藩과의 貿易은 별로 큰 問題없이 계속 되었다.

2. 開國의 經緯

○. 日本의 開國

日本의 開國은 1859年에 이루어 졌는데 그것은 日本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歐美列強의 강압에 依한 것이었다. 日本開國의 前後의 時期는 歐美列強의 아세아 進出이 活發하게 이루어 지던 때였다. 가장 먼저 産業革命을 이룩한 英國은 1958年 인도를 植民地化 했으며 1840年 淸과의 아편전쟁에서 勝利해서 1842年 南京條約이 체결 되었다. 이 條約에 依하여 淸은 香港의 할양, 배상금의 支拂과 더불어 廣東, 上海等 五個港을 開港해서 自由貿易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淸國은 世界資本主義 앞에 門戶를 開放 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1856 ~ 1858年의 第二次 아편전쟁에 의해서 한층 不利한 不平等條約인 天津條約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美國은 19世紀에 들어와서 英國을 뒤 쫓아 中國貿易에 進出 했는데, 1848年 멕시코로부터 캘리포니아를 빼앗아 大平洋에 進出했다. 러시아는 18世紀末 시베리아를 征服해서 淸國을 압박하고 19世紀 初期에는 沿海州를 빼앗아 우리나라의 東海로 나와 坎查카로 부터 千島・樺太로 進出하기 始作하고 있었다.¹¹⁾

이러한 國際情勢下에서 1853年 7월 美國의 「페리」제독은 四隻의 군함을 이끌고 浦賀에 入港해서 武力을 背景으로 하여 開國을 強要했다. 이리하여 다음해인 1854年 3월 드디어 日美和親條約이 체결 되었다. 이 條約은 通商條項은 들어 있지 않았지만, 조약에 의거해서 日本에 着任한 總領事 「해리스」에 의하여 1858年 7월 日美修好通商條約이 체결 되었다. 그해 8월에는 英國, 俄國, 러시아, 10월에는 프랑스와 대개 비슷한 內容의 通商條約이 체결되어 다음해인 1859年 7월 1일 부터 實施 되었다.

通商條約의 內容은, (1) 關稅率은 通商國과의 協定에 依하여 定한다(關稅自主權의 喪失), (2) 貨幣는 同種同量의 것이 交換되는 것으로 하며 改鑄 할 때는 締約國과 協議한다(幣制自主權의 喪失), (3) 한 締約國에 供與된 最良의 權益은 다른 締約國에도 自動적으로 적용한다(最惠國條項), (4) 日本人에 대한 外國人의 범치는 外國領事가 自國法에 依하여 재판한다(治外法權의 承認), (5) 開港地에 居留民地를 提供하며 自治權을 保障한다(居留地의 設定)는 것 등이 있

10) 山本七平：日本資本主義精神，光文社，昭和55，p.199

11) 大石嘉一，菅本憲一編：日本資本主義發達史の基礎知識，有斐閣，昭和56年，pp.16~17.

다.¹²⁾

日本으로서는 大端히 不平等한 條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結局 國力の 差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外國人の 國內通行의 自由를 開市・自由港에 限定 시킨것은 外國의 經濟的 侵略을 방지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868年 강력한 中央集權的인 明治政府가 탄생해서 近代化의 政策을 착착 進行 시켰기 때문에 不平等한 通商條約을 극복 하면서 오늘과 같은 日本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b. 朝鮮開國의 經緯

歐美諸國의 아세아 進出은 朝鮮에 對해서도 例外는 아니었다. 1832年 英國의 商船 Lord Amherst 號가 忠南 洪城郡 不毛島 附近에 와서 交易을 要請했다. Amherst 號의 船員들은 文書와 西洋布, 璃器, 千里鏡, 時辰表 등의 예물을 國王에게 드리고 金, 銀, 銅 및 大黃 등의 藥材를 要求 했으나 朝鮮政府가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文書와 예물만을 드리고 그냥 돌아갔다. 1846~1847年에는 불란서 함대가 와서 佛人 宣教師 Ibert, Maubant, Chastan 등의 殺害에 對하여 문책 했으며, 1864年에는 露國人 五名이 두만강에 와서 交易을 要請했다. 1866年에는 普國人 E. Oppert가 忠南 端山郡 大山面 烏島에 와서 通商을 要求했다. 또한 同年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一時 점령 했으나 격파 되었다. 1866年에는 美國의 商船 사만호가 평양 軍民에 의하여 소각 되어진 사건 때문에, 1871年 美國의 함대가 출동해서 강화도의 一角을 점령했으나 결국 격퇴 되었다.

1868年 德川幕府가 폐지되고 王政復古가 이루어진 日本政府는 對馬島主 宗氏를 通해서 朝鮮政府에 修交를 要請했다. 그러나 朝鮮政府의 實權者인 大院君은 文書와 印書가 舊例와 다르다고 해서 이를 가절했다. 그후 日本政府는 1872年 外務大臣 花房義質을 釜山에 파견해서 교섭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1876年 黑田清隆이 군함 數隻을 강화도에 이끌고 와서 무력적인 위압에 의하여 강화조약을 체결했다.¹³⁾ 결국 日本은 自己가 歐美諸國에 문호를 開放 할때 함대의교에 위압된 경험을 살려, 군함과 군대를 동원해서 朝鮮政府로 하여금 開國에 同意 하도록 했다.¹⁴⁾

강화조약의 要點은, (1) 朝鮮이 自主國家임을 確認, (2) 釜山港의 開港, (3) 1876年 2月부터 20個月 以內에 5道 沿岸의 便利한 항구 2개소의 開港, (4) 兩國人民의 自由스러운 貿易을 官吏가 간섭하지 않을 것, (5) 輸出稅의 免稅와 港稅만을 부과하는 것 等이다. 이들 以外에도 治

12) 後藤靖, 佐佐木隆爾, 藤井松一: 日本資本主義發達史, 有斐閣, 昭和54年, p.14.

13) 崔虎鎮: 韓國經濟史, 博英社, 1977, pp.203~204 참조.

14) 車耕權: 日帝下에 있어서 韓國의 貿易政策, 日帝의 經濟侵奪史, 民衆書館, 1971, p.509.

外法權, 日本貨幣의 通用權을 強制로 認定하도록 했다.¹⁵⁾

이 條約은 日本이 歐美諸國과 체결한 通商條約 보다도 훨씬 不平等한 條約이었다. 日本의 경우에는 低率이라고는 하지만 關稅를 부과 하도록 되어 있었음에 反하여 朝鮮의 경우는 無稅였던 것이다. 결국 그것은 朝鮮政府가 朝鮮自體의 內政的 모순 때문에 격변하는 世界情勢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三. 明治維新부터 淸日戰爭까지의 朝日貿易

明治維新부터 淸日戰爭까지의 朝日間の 貿易은 다음과 같이 三段階로 區分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 (1) 朝鮮開國(1876) 以前
- (2) 朝鮮開國부터 甲申政變(1884)까지
- (3) 甲申政變부터 淸日戰爭(1894)까지

第一의 段階는 朝鮮이 아직 鎖國下에 있을 때의 貿易으로서, 朝日間の 近代的인 貿易이 始作되기 以前의 상태이다. 즉 朝鮮政府와 日本政府間的 外交關係가 없이 以前부터 이루어 지고 있었던 對馬島와의 貿易이 그대로 계속되던 時期라 할 수 있을 것이다.

第二의 段階는 日本의 압력에 의하여 朝鮮이 開國하고 朝鮮市場의 大部分이 日本에 의하여 獨占된 단계이다.

第三의 段階는 獨立黨 金玉均等 친일파의 쿠데타 失敗를 계기로, 淸이 朝鮮進出, 日本이 市場獨占 상실의 단계이다. 以下 以上과 같은 區分에 따라서 朝日間の 貿易을 說明하고자 한다.

1. 明治維新부터 朝鮮開國까지의 貿易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日本의 江戸時代의 朝日間の 關係는 乙酉條約 以後 順調롭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貿易 또한 釜山の 倭館을 中心으로 해서 朝鮮과 對馬藩間에 活發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貿易은 朝日間の 外交關係가 이루어지지 안했던 明治時代에 들어와서도 계속되었다. 江戸時代 日本이 朝鮮으로 부터의 木綿 輸入은 상당한 量에 달해 日本의 木綿機業 成立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¹⁷⁾

明治維新부터 朝鮮開國 까지의 貿易額의 資料는 部分的인것 밖에 남아있지 않으며, 그것도자

15) 崔虎鎮：韓國經濟史, pp.204 ~ 205.

16) 松井淸編：近世日本貿易史第一卷, 有斐閣, 昭和34年, p.138.

17) 松井淸編：前掲書, p.142.

료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당시의 무역액은 表 1 및 表 2와 같다. 이들 表를 보면 1876 年の 數字는 둘다 똑 같으나 다른 年度들 特히 1873 年에 이르러서는 貿易差額이 反對로 될 정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왜 이와 같은 차가 생기는지는 아직도 그 理由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지않다.

〈表1〉 開國直前 朝日貿易額(單位:円)

年 度	輸 出	輸 入	合 計	輸出入(△)超
1873	59,664	52,382	112,046	7,282
1874	57,522	55,935	113,457	1,587
1875	68,930	59,787	128,717	9,143
1876	81,374	82,572	163,946	△ 1,198

資料:松井清編,近代日本貿易史第一卷, p.142.

※ 元資料:露國大藏省,農商務省山林局御藏版訳 韓國誌.

〈表2〉 開國直前 朝日貿易額(單位:円)

年 度	輸 出	輸 入	合 計	輸出入(△)超
1873	59,664	63,382	123,046	△ 3,718
1874	65,823	59,935	125,758	5,888
1875	73,450	45,271	118,721	28,171
1876	81,374	82,572	163,946	△ 1,198

資料:松井清編,近代日本貿易史第一卷, p.142.

※ 元資料:日韓通商協會報告,第二号

※ 上記兩表 다같이 日本을 主體로한 輸出을 나타냄.

2. 朝鮮開國부터 甲申政變까지의 貿易

1876 年 日本과 강화조약을 맺은 以後 朝鮮에 대한 淸의 영향력은 약화 되었으며, 關稅 또한 無稅로 되었기 때문에 이 時期의 朝鮮의 무역은 日本의 독무대였다. 朝鮮은 1882 年 美國을 비롯해서 淸과, 1883 年에는 英, 獨, 1884 年에는 露와 修好通商條約을 체결했다. 또 1883 年에는 朝日通商章程과 海關稅則의 約定에 依해서 半植民地의이며 偏務的이기는 하나 朝日間의 輸出入品에 關稅를 부과하게 된 時期이기도 하다. 이것은 韓美修好通商條約에서, 各 稅率에 關해서는 朝鮮政府가 3 個月前에 通告함에 依해서 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日本도 朝鮮의 關稅의 自主權을 認定하지 않을 수 없었다.¹⁸⁾ 그러나 同年 日本은 韓英修好通商條約에서

18) 車轆輪:前掲書, p.510.

의 最惠國條款에 根據해서 朝鮮大陸의 行商權과 漢城 進出 權利를 획득했다. 이로 말미암아 朝鮮의 市場은 日本에 完全히 開放되어졌다. 따라서 이 時期는 日本이 朝鮮의 貿易을 獨占했을뿐만 아니라 朝鮮에 貿易의 發판을 構築한 時期이기도 한다.

(A) 貿易規模의 發展과 그 內容

朝日間に 實質的인 貿易이 始作된 1877年 以後의 貿易額의 推移는 表3과 같다. 1877年부터 1884까지의 數字를 검토해 보면, 마지막 해인 1884年을 除外하면 이 時期에 있어서의 輸出入 모두가 大端한 勢力으로 擴大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881~83年間の 日本의 輸出增加는, 日本이 3年間이나 계속했던 輸入超過를 역전시켜, 全體로서 이 時期를 日本이 輸出超過가 되도록 한 結果가 되었다. 즉 1877年 7月 1日 以後 1884年까지의 日本의 輸出額 合計는 8,226千円, 日本의 輸入額 合計는 6,326千円로 되어있어 差額 1,900千円이 日本의 輸出超過額이었다.

〈表3〉 開港後의 朝日貿易

(單位: 1,000 円)

年 度	輸出合計 A	日本産 B	外國産 C	B/A %	C/A %	輸入合計	輸出入 合計	輸出入 (△) 超
自1877年 7月 1日 至1878年 6月 30日	229	88	141	38.43	61.57	120	349	109
自1878年 7月 1日 至1878年 12月 31日	143	30	113	20.98	79.02	155	298	△ 12
79	567	56	511	9.88	90.12	612	1,179	△ 45
80	978	116	862	11.86	88.14	1,260	2,238	△ 282
81	1,945	202	1,743	10.39	89.61	1,372	3,317	173
82	1,778	261	1,517	14.68	85.32	1,340	3,118	438
83	2,248	938	1,310	41.73	58.27	1,059	3,307	1,189
84	338	178	160	52.66	47.34	408	746	△ 70
85	461	233	227	50.54	49.24	471	931	△ 11
86	829	701	128	84.56	15.44	563	1,393	266
87	552	361	191	65.40	34.60	1,010	1,512	△ 458
88	707	559	148	79.07	20.93	1,042	1,749	△ 335
89	1,093	887	206	81.15	18.85	1,273	2,366	△ 180
90	1,251	1,022	229	81.69	18.31	4,364	5,614	△ 3,113
91	1,466	1,267	199	86.43	13.57	4,033	4,499	△ 2,567
92	1,411	1,230	181	87.17	12.83	3,046	4,457	△ 1,635
93	1,301	1,091	211	83.01	16.22	1,999	3,301	△ 698

資料: 松井清編: 近代日本貿易史第一卷, p.143.

다음에 日本의 輸出額을 日本產 輸出과 外國產 輸出로 나누어 살펴보면, 이 時期에 있어서 外國產 輸出額 合計는 6,357 千円으로서 輸出額 合計의 77.28%를 占하고 있다. 즉 日本이 朝鮮에 輸出한 商品의 압도적인 部分이 外國製品이었다. 日本은 朝鮮貿易에 대한 獨占的 地位를 利用해서, 上海-神戶-朝鮮 開港場의 三點을 연결하는 중계무역에 의해서, 日本商業資本은 輸出市場을 擴大시켜 여기에서 利益을 획득했던 것이다.

外國產 輸出額이 全體 輸出額에 占하는 比率이 變化를 보면, 1881年을 頂점으로 해서 그후 下落하고 있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日本產輸出은 增加하고 있다. 특히 最大의 出超를 示顯하고 있는 1883年에는, 日本產 輸出比率은 前年の 14.68%로 부터 일거에 41.73%로 상승하고 있다.

以上과 같이 이 기간에 있어서 朝日間의 貿易額은 급속히 증가 했는데 이것은 日本側의 적극적인 活動에 의해서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의 商業資本은 外國商品을 買入價의 三倍에 가까운 비싼 값으로 朝鮮에 파는 中繼貿易에 의해서 利益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朝鮮에서 아주 헐한 값으로 買入한 農業生産物이나 혹은 原料의 輸入에 의해서도 莫大한 利益을 얻었다.¹⁹⁾ 李清源氏는 朝鮮近代史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朝鮮貿易은, 尤-럼 工業商品의 朝鮮市場에의 轉賣와 朝鮮의 原料를 日本市場에 轉買함에 의해서, 日本商人에게 二重의 利益이 되었다.」²⁰⁾

(b) 貿易商品과 그 內容

日本의 輸出: 이 時期에 있어서 輸出商品의 압도적인 部分이 外國產 商品이었다는 것은 앞에서 言綴한 바와 같거니와, 좀더 자세하게 輸出商品의 內容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表 4는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合計額 538 千円, 輸出總額의 11.69%를 찾아하고 있는 日本商品에 대해서 보면, 最大의 輸出品은 銅이며, 이어서 甲斐絹, 絹地製品, 酒, 쌀, 성냥, 麻織物, 철기 등이 主要한 輸出品으로 되어있다. 이들 商品은 銅을 除外하면 大部分이 問屋制家內工業 및 매뉴팩처어製品이거나 農産物로서, 商業資本에 의해서 크게 支配되어 지고있던 것들이었다. 銅에 대해서 말하면 이 時期에 있어서 朝鮮은 中國 인도의 다음 가는 輸出市場이었다. 1883年에는 貨幣材料로서 678 千円에 달하는 輸出이 이루어 졌으며 이것은 그 해 銅 輸出額의 거의 半을 찾아하고 있다.²¹⁾ 이것이 日本產 輸出額이 全輸出額에서 찾아하는 比率을, 41.73%까지 끌어 올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19) 李清源: 朝鮮近代史, 國民文庫, p.70 참조

20) 李清源: 前掲書, p.71.

21) 松井清編: 前掲書, p.146.

〈表4〉 開港後 五年間の 輸出品 構成(單位：1,000 円)

品 目	価 格	%	品 目	価 格	%
米	23	0.50	細 麻 布	907	19.70
酒	23	0.50	T 印 綿 布	151	3.28
銅	198	4.30	種 久 의 綿 布	145	3.15
錫	7	0.15	綿 糸	38	0.83
鐵 工 品	8	0.17	生 綿	21	0.46
甲 斐 絹	76	1.65	羽 紗	39	0.85
絹 地 製 品	30	0.65	絹 地	13	0.28
매 스 린	8	0.07	染 料	181	3.92
麻 織 物	10	0.22	錫	68	1.48
傘	5	0.11	닉 켈	28	0.61
鏡	7	0.15	亜 鉛	11	0.24
蚊 帳	3	0.07	銅 貨	38	0.83
漆 器	8	0.17	銃 器	9	0.20
陶 磁 器	7	0.15	玻 璃	10	0.22
성 냥	22	0.48	肉 荳 蔻 製 品 及 藥 品	18	0.39
雜 品	109	2.36	雜 品	83	1.80
日 本 商 品 合 計	538	11.69	歐 州 商 品 會 計	4,066	88.31
샤 쓰 地	2,306	50.10	輸 出 總 額	4,603	100.00

資料：松井清編：近代日本易史 第一卷，p.146.

다음으로 合計額 4,066 千円, 輸出總額의 88.31 %를 차지하는 外國商品(그 大部分이 歐州商品이다)을 보면, 샤쓰地의 2,306 千円을 筆頭로 해서 細麻市, 綿布類, 染料, 錫 등이 主要한 것으로 되어있다. 샤쓰地와 綿布類를 合한 額이 總輸出額에 대한 比率을 算出해 보면 56.53 %이며 여기에 細麻布를 加算하면 76.23 %가 되어 이것 만으로도 歐州商品 合計額의 約 80 %가 된다. 이들 섬유제품은 그 大部分이 英國産이었다.

日本の 商業資本이 이들 歐州商品을 朝鮮에 轉賣함에 의해서 얼마나 暴利를 했는가를 말해주는 資料가 있다. 日本帝國第五統計年鑑에 의하면, 外國産 輸出額이 最高에 達했던 1881 年에, 日本이 朝鮮에 輸出한(물론 再輸出 이다) 生金巾은 903,770 円으로 그 數量은 165,672 反이었다. 이 數字로부터 生金巾 一反當 5.46 円이라는 輸出價格을 算出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해의 生金巾 一反當 日本의 國內市場 價格은 不明이다. 때문에 이를 알기 위해서 生金巾 一反當, 日本全國 都邑價格이 判明되는 1886 年에 대해서 보면, 第八統計年鑑에서는 0.27 円으로 되어 있다. 이 價格을 1881 年에 슬라이드 하기 위하여, 日本이 英國에서 輸入한 生金巾 10 야드當

輸入價格의 推移를 보면, 1886 年에는 0.53 円, 1881 年에는 0.59 円이라는 數字를 같은 資料에서 얻을 수 있다. 國內市場 價格이 輸入價格과 平行해서 變化했다고 가정하면(이 가정은 生金巾이 日本에서 生産되지 않았기 때문에 合理的이라 할 수 있다) 1881 年 當時의 生金巾 一反當 國內市場 價格은 0.30 円으로 推定 할 수 있다. 이 日本 國內市場 價格으로 對朝鮮 輸出價格 一反當 5.46 円을 나누면 무려 18.2 倍라는 엄청난 數字가 된다. 즉 以上の 統計에 근거해서 계산한다 하더라도, 日本의 商業資本은 日本에서 販賣하는 價格의 20 倍에 가까운 비싼 값으로 朝鮮에 轉賣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事實을 日本産 商品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1882 年에 熟銅類 100 斤의 對朝鮮 輸出價格은 32.13 円인데 反하여, 對中國 輸出價格은 19.17 円, 對英國 輸出價格은 19.00 円으로서, 對朝鮮 輸出價格은 이들 兩國에 대한 輸出價格의 約 1.7 倍였으며, 성냥도 마찬가지로 中國 및 기타의 國에 대한 輸出價格의 約 2 倍의 價格으로 朝鮮에 輸出했다.²²⁾

日本의 輸入 : 輸出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877 年 7 월 1 일부터 82 年 6 月 30 日 까지의 5 年間の 輸入品과 그 內容은 表 5 와 같다. 輸入總額의 約 30 %를 차지하는 쌀을 비롯해서, 金, 皮革, 豆類, 昆布, 生絲, 海參, 銀, 乾魚, 毛布, 骨 등이 主要한 輸入品으로 되어있다. 이들 商品은, 朝鮮의 封建的인 現物經濟가 급속히 商品經濟 關係에 휘말린 결과 발생한 窮迫販賣的 生産物로서, 그것이 日本商人에 의해 얼마나 헐한 값으로 買入 되어졌는가 하는 것은 앞에서 든 例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5〉 開港後 五年間の 輸入品 構成(單位: 1,000 円)

品 目	價 格	%	品 目	價 格	%
豆 類	557	10.91	乾 魚	87	1.70
皮 革	829	16.24	葛 布	178	3.49
骨	67	1.31	毛 布	67	1.31
豆 糟	9	0.18	麻 織 物	43	0.84
米	1,530	29.97	生 糸	174	3.41
青 銅	7	0.14	綢	62	1.21
金	972	19.04	人 參	60	1.18
銀	87	1.70	藥 品	49	0.96
鮑	19	0.37	雜 品	130	2.55
毛 髮	4	0.08	輸 入 總 額	5,105	100.00
海 參	171	3.35			

資料: 松井清編: 近代日本貿易史第一卷, p.147.

22) 松井清編: 前掲書, pp.146 ~ 147.

朝鮮이 農業, 原料 生産國이었기 때문에, 日本商人이 갖어오는 새로운 商品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들 농산물을 中心으로한 生産物을 내어 놓을 수 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이들의 海外流出은 必然的인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朝鮮의 開國과 더불어 日本의 穀物輸入商이 釜山, 元山等의 開港場에 몰려들어 쌀, 大豆等을 買占해서 日本으로 輸送했다. 買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즉 日本人은 耕作을 始作하기 前에 스스로 農業地方을 순회하거나 代理者인 朝鮮人을 순회시켜 보통 수확의 절반을 갖일 것을 條件으로 農民에게 資金을 貸與하고, 가을이 되면 또다시 契約地方을 순회해서 얻은 自己 몫을 貿易港으로 運送하는 方法이었다. 資金을 貸與해주는 지역의 쌀 값은 米穀市場에서의 값보다는 헐했기 때문에 豊년에는 莫大한 利益을 보였으며 흉년이라 할지라도 손해는 거의 없었다. 이와같은 米穀을 담보로한 資金貸與方法에 의하여, 多量의 米穀이 흉년인 경우에도 日本人 穀物輸入商의 手中에 들어 갔으며, 이로 말미암은 손실은 전부 朝鮮農民이 부담하는 結果가 되었다. 이 때문에 朝鮮政府는 1889년에는 穀物輸出을 禁止시키기 위하여 防穀令을 布告했으며, 住民들의 日本商人에 대한 反발 또한 치열 하였다. 이렇게 되자 日本商人은 釜山에서조차 日本군함이 정박 하므로서 商業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³⁾ 쌀에 이어서 큰 品目은 19.4%를 차지했던 金이었다.

以上과 같이 日本은 헐한 朝鮮米穀을 多量 輸入하므로서 低賃金을 維持시켜, 日本資本主義의 發展에 공헌하도록 했다. 同時에 多量의 金, 銀을 輸入해서 日本의 對外決濟手段을 대폭 증가시켜, 日本貿易 및 工業發展을 有利하게 유도했다.

3. 甲申政變으로 부터 淸日戰爭 까지의 貿易

이 時期는 朝鮮貿易에서 日本의 獨占的 地位의 붕괴와 淸國의 進出이라는 事件뿐만 아니라, 歐美諸國과 通商條約을 체결한 時期이기도 하다. 즉 1882年 五月 韓美通商條約, 83年 韓日貿易章程, 同年 韓英通商條約, 韓獨通商條約, 84年 韓露通商條約, 86년에는 韓佛通商條約이 체결 되었다. 特히 83年의 韓日貿易章程에 의해서 朝鮮의 關稅自主權이 어느 程度 回復 되었다고는 하나 朝鮮大陸에서의 行商權과 漢城進出의 權利를 획득한 것은, 日本이 朝鮮수탈의 기반을 構築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던 이 時期에 朝鮮의 政治情勢와 더불어 淸의 勢力에 의해서 日本勢力이 後退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는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朝鮮侵略의 발판을 만든 時代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 朝鮮貿易에 있어서 淸日의 比較와 朝日貿易額의 變遷

23) 松井淸編：前掲書，p.148.

朝鮮의 輸入貿易에 있어서 淸이 日本 추격이 얼마나 맹렬한 것이 었던가는, 1890 年에 仁川港 輸入貿易에서 淸이 日本능가, 1891 年에 元山港 輸入貿易에서 淸이 日本능가 및 從來 日本의 獨占港으로서 알려졌던 釜山港 輸入貿易에 1889 年 부터 淸의 着實한 進出, 이 세가지 事情이 잘 말해주고 있다.(表 6, 表 7, 表 8 참조)

〈表 6〉 仁川港 輸入貿易에서 淸이 凌駕 (單位: 달러)

年 度	淸에서 輸入(A)	日本에서 輸入(B)	A/A+B%	B/A+B%
1889	729,037	1,113,647	39.60	60.40
1890	1,312,614	1,259,218	51.04	48.96

資料: 松井淸編: 近代日本貿易史第一卷. p.151

〈表 7〉 元山港 輸入貿易에서 淸이 日本凌駕 (單位: 달러)

年 度	淸에서 輸入(A)	日本에서 輸入(B)	A/A+B%	B/A+B%
1890	343,885	392,266	46.71	53.29
1891	366,885	360,836	50.42	49.58

資料: 松井淸編: 近代日本貿易史第一卷, p.151.

〈表 8〉 釜山港 輸入貿易에서 淸의 進出 (單位: 달러)

年 度	淸에서 輸入(A)	日本에서 輸入(B)	A/A+B%	B/A+B%
1888	0	642,239	0	100.00
1889	50,565	755,949	6.27	93.73

資料: 松井淸編: 前掲書, p.151.

이제 1885 年에서 93 年 까지의 이들 3 港의 輸入貿易額 合計는 表 9 와 같다. 1887 年을 轉期로 해서 淸의 比率이 급증해서, 1893 年에는 실로 日本과 淸이 伯仲之勢였다. 이대로 간다면 틀림없이 1894 年에는 全輸入貿易에서 淸이 日本을 능가 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以上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對朝鮮輸出貿易에 있어서 淸의 日本추격 과정은, 日本이 朝鮮貿易에서 市場獨占 붕괴를 意味함과 同時에, 1882 年 日本의 軍備大擴張, 1891 年의 製鐵所案等은 계획적이며 組織的인 獨占回復의 긴박성을 나타내는 指標라 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한편 朝鮮의 輸出貿易에서 淸日의 地位를 살펴보면 表 10 과 같다. 表 10 을 보면 朝鮮의 輸入貿易에서와 같이 日本의 큰 後退는 없었으며, 여전히 日本이 압도적인 우세를 維持하고 있다.

24) 松井淸編: 前掲書, p.148.

〈表9〉 全輸入貿易에서 日淸比較 (仁川, 元山, 釜山合計, 單位: 달러)

年 度	淸에서 輸入(A)	日本에서 輸入(B)	A/A+B%	B/A+B%
1885	313,342	1,337,392	19.53	81.47
1886	455,015	2,064,353	18.06	81.94
1887	742,661	2,080,787	26.30	73.70
1888	860,328	2,196,115	28.15	71.85
1889	1,101,585	2,299,118	32.39	67.61
1890	1,660,075	3,086,897	34.97	65.03
1891	2,148,294	3,226,468	39.97	60.03
1892	2,055,555	2,555,675	44.58	55.42
1893	1,905,698	1,949,043	49.44	50.56

資料: 松井淸編: 前掲書, p.152.

〈表10〉 全輸出貿易에서 日淸比較 (仁川, 元山, 釜山合計, 單位: 달러)

年 度	淸에서 輸入(A)	日本에서 輸入(B)	A/A+B%	B/A+B%
1885	5,479	337,775	1.43	98.57
1886	15,977	488,041	3.17	96.83
1887	18,873	783,752	2.35	97.65
1888	71,946	785,238	8.39	91.61
1889	109,798	1,122,278	8.91	91.09
1890	70,922	3,475,098	2.00	98.00
1891	136,464	3,219,887	4.07	95.93
1892	149,861	2,271,928	6.19	93.81
1893	134	1,543	7.99	92.01

資料: 松井淸編: 前掲書, p.153.

日本の立場에서 본다면, 食糧, 原料 輸入市場으로서 朝鮮市場의 確保가 淸과는 달리, 日本資本主義 發展에 있어서 얼마나 重要な 意義를 갖는가를 暗示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²⁵⁾

日本이 對朝鮮 輸出貿易의 다른 側面 즉 貿易의 質的 內容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앞서 나온 表3은 1885年에서 1893年까지의 對朝鮮 輸出額을 日本產과 外國產別로 나타내고 있다. 이 表에 의하면, 日本이 政治的으로 淸에 敗退함으로 해서 對朝鮮 輸出額이 격감했다. 그러나 1885年以後는 日本產 輸出額이 外國產 輸出額을 능가해서, 1886年의 日本產 輸出額 比率 84.56% (이것은 朝鮮에 基근이 있었기 때문에 日本 쌀이 大量으로 輸出 되었기 때문임)

25) 松井淸編: 前掲書, p.152.

는 별도로 친다 하더라도, 全體에서 찾아하는 比率은 착실히 높아지고 있다. 즉, 1885년에 日本產 輸出額이 全體 輸出額에서 찾아하는 比率이 50.54% 였는데, 1889년에는 81.15%가 되었으며, 1892년에는 87.17%로서 9할 가깝게 높아졌다. 絕對額의 推移를 보면, 全體 輸出合計額에서는 독점붕괴 以前 水準까지는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日本產 輸出額은 1890년에 獨占 붕괴 이전 最高額에 達했던 1883년의 水準을 능가 했다. 한편 外國產 輸出額은 1885年 以後에는 1878年 以前 水準의 였던 220千円대를 한번도 상회해 본적이 없다.

以上과 같이 독점붕괴기에 들어와서 부터 日本이 對朝鮮 輸出貿易의 質的인 內容은 큰 變化를 가져왔다. 이러한 變化가 1888年경 日本의 企業발흥최성기를 배경으로 생겼다는 것, 또한 日本產 輸出額이 以前 水準 돌파가 機械制大工業 製品인 綿絲의 輸出이 始作된 日本 最初의 資本主義恐慌의 해(年)에 일어났다는 것은 간과 할 수 없는 重要性을 갖고 있다 할 것이다.

日本이 이와같이 淸의 추격에 의하여 그 輸出의 質的인 內容이 變換에 대하여, 淸은 仁川과 元山에서의 日本의 패권을 빼앗고 釜山에까지 추격의 손을 뻗쳐왔다. 그런데 淸의 輸出貿易의 內容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것은 日本이 朝鮮貿易 獨占時期에 행해졌던 金巾의 仲繼貿易의 였다. 즉 淸國은 主로 外國商品 特히 英國商品의 仲繼貿易 이었는데 反해서, 日本은 自國商品의 直接貿易의 였다.²⁶⁾ 이 점은 日本이 淸의 進出을 許容하면서도, 對朝鮮貿易에 있어서 淸과는 다른 質的인 差異를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는 日本의 對朝鮮 輸入額의 推移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前掲表 3에 의하면, 輸出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884年을 고비로 해서 축소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점차 회복되어 1890년에는 獨占期의 最高水準을 능가하고 있다. 이것은 前年の 흉작 때문에 2,541千円에 달하는 大量의 朝鮮米가 輸入된 理由도 있지만 이것을 除外하더라도 그때의 水準을 상회하고 있다. 이와같이 輸入의 必要性에도 불구하고, 輸出이 淸과의 對立競爭에서 제압 당함으로 해서, 이 時期를 通하여 1886年을 除外한다면 全年에 걸쳐 輸入超過 였으며, 全體로서는 8,731千円의 輸入超過를 記錄했다.

以上 朝鮮貿易에서 日本의 獨占의 地位의 붕괴를 淸과의 比較를 通해서 考察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淸과의 相違, 日本의 對朝鮮貿易에서의 質的 內容의 變化를 고찰했는데, 이어서 貿易商品을 分析해 보고져 한다.

(B) 貿易商品과 그 構成

日本의 對朝鮮輸出: 1885年 및 1893年의 對朝鮮 輸出品目은 表 11과 같다. 이 表에 의하면 日本이 朝鮮貿易을 獨占하고 있던 時期에 가장 많은 比重을 찾아하고 있던 外國產 綿布類(英

26) 崔虎鎮: 韓國經濟史, pp.210 ~ 211 참조.

〈表11〉 對朝鮮 主要輸出品 構成

(單位：1,000 円)

品目	1885年		1893年	
	原 価	%	原 価	%
米	41	8.89	15	1.15
裸 麦	-	-	17	1.31
酒 類	12	2.60	42	3.23
食 塩	3	0.65	76	5.84
小 麦	7	1.52	12	0.92
金 屬 類	49	10.63	303	23.29
棉 花	-	-	74	5.69
綿 織 糸	-	-	6	0.46
綿 布 類	21	4.56	19	1.46
絹 布 類	27	5.86	25	1.92
煙 草 類	4	0.87	13	1.00
石 炭 類	1	0.22	13	1.00
木 材 及 板 類	2	0.43	12	0.92
성 냥 船	3	0.65	60	4.61
汽 船	-	-	17	1.31
銅 器 類	2	0.43	-	-
鐵 器 類	4	0.87	23	1.77
陶 磁 器 類	4	0.87	23	1.77
日 産 通 計	223	50.54	1,090	83.78
胡 椒	2	0.43	-	-
白 砂 糖	5	1.08	7	0.54
染 粉	15	3.25	3	0.23
紺 青	17	3.69	1	0.08
米	5	1.08	11	0.85
金 屬 及 金 屬 器 類	16	3.74	36	2.77
石 油	22	4.77	125	9.61
棉 花	6	1.30	3	0.23
綿 織 糸	10	2.17	5	0.38
綿 布 類	90	19.52	3	0.23
絹 布 數	1	0.22	-	-
外 國 産 通 計	227	49.24	211	16.22
輸 出 合 計	461	100.00	1,301	100.00

資料：松井清編：前掲書，p.155.

國製 金巾類)는, 1885년에는 19.52%로 감소하고 1893년에는 겨우 0.23%로 되어있다. 日本産 輸出品으로서는 年에 따라 多少의 變動은 있다 할지라도 金屬類가 이 時期를 通하여 大宗을 찾아 했으며 小금, 酒類, 쌀등의 食料品類, 綿, 絹布등의 섬유제품, 성냥, 도자기등의 잡화류가 主要한 것으로 되어 있어 以前과 比較해서 商品構成에서 거의 變化가 없는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注目할만한 것은, 額數는 大端히 적다 하더라도 以前에는 없었던 品目으로서, 綿織絲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도 言及한 바와같이 綿織絲의 輸出은 1890年의 恐慌과 더불어 始作되는데, 朝鮮은 中國과 더불어, 當時로서는 가장 有望했던 日本紡績資本이 가장 期待를 걸었던 市場이었다.

1890年 日本最初의 資本主義的 過剩生産恐慌은 機械制大工業인 紡績業을 中心으로 해서發生했다. 따라서 이 恐慌은 이미 洋式機械를 導入해서 原始的인 産業革命을 수행하고 있었던 綿織物 等에 準 영향도 간과 할 수 없다. 1889年부터 1890年에 걸쳐서 綿織物은 6.59%나 그 生産數量이 감소하고 있으며, 生木綿 1反當 價格은 0.36圓에서 0.34圓으로 下落하고, 晒本綿도 1年늦은 1891년에는 0.32圓에서 0.30圓으로 下落했다. 이와같은 國內市場이 梗塞된 狀態下에서는 外國市場의 役割이 큰 意味를 갖는다는 것은 말할 必要도 없다. 1899年의 綿織物 輸出額은 147千圓 이었는데, 1890년에는 174千圓, 1891년에는 544千圓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外國市場 擴大 즉 輸出增大에서 가장 重要한 地位를 부여했던 곳은 어디 였겠는가. 그것은 綿織絲에서와 마찬가지로 朝鮮이었다.²⁷⁾

表 12는 1889에서 1893년까지 棉花, 綿織絲, 綿布類의 對朝鮮 輸出額이 各各 總輸出額에서 찾아하고 있는 比率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綿布類에 對하여 보면, 그 比率은 1889年의 6.1%에서 1890에는 23.0%로 급격히 상승해서, 恐慌으로 인한 朝鮮市場의 意義가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 比率은 日本國內外 市場의 全般的인 回復과 더불어 下落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綿織物 輸出市場으로서의 朝鮮의 意義가 상실 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時期부터 輸出伸張으로 전환한 綿織物業으로서의 朝鮮市場이 갖이는 잠재적 重要性은 점점더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綿織絲는 처음부터 75.0%라는 압도적인 比率이었으며, 이는 무엇보다도 朝鮮市場 확보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棉花는 中國棉花와 더불어 中番手 紡出의 原料로서는 적합하지 안했기 때문에, 打綿으로 輸出되어 졌는데 그 95.8%가 朝鮮市場이었다. 이것은 이미 몰락하기 시작했던 日本棉花, 더구나 紡績産業資本의 成長에 의하여 需要를 상실해, 일거에 커다란 타격을 받은 日本의 國內棉作에 대해서 구제수단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理由라 할 것이다. 이러한 朝鮮市場의 存在는 紡績資本과 地主間의 모순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으며, 그것은 紡績資本에 대해서도 利益이 된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27) 松井清編：前掲書，p.156.

〈表 12〉 重要商品の對朝鮮輸出額이 그 輸出總額에서 점하는 比率

(單位：1,000 円)

年 度	棉 花			綿 織 糸			綿 布 類		
	總 額 (A)	朝鮮向 (B)	B/A %	總 額 (C)	朝鮮向 (D)	D/C %	總 額 (E)	朝鮮向 (F)	F/E %
1889	-	-	-	-	-	-	147	9	6.1
1890	-	-	-	-	-	-	174	40	23.0
1891	48	46	95.8	8	6	75.0	243	70	28.8
1892	53	52	98.1	8	8	100.0	524	28	5.1
1893	76	74	97.4	59	6	10.2	1,110	19	1.7

資料：松井清編：前掲書，p.157.

이와같이 그 額數는 적었다 할지라도, 成長을 계속하고 있던 日本綿業으로서는, 輸出市場으로서의 朝鮮의 갖이는 意義는, 그 産業資本的인 要求로서 다른 어느 部內보다도 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⁸⁾

以上과 같은 見解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反對見解도 있다. 즉 「國內市場의 협소성은 이와같이 日本의 紡績業의 그후의 侵略的인 發展方向을 規定하고 있다고는 하나, 明治 20 年代의 紡績業은 國內에서 종래 消費되어 지고 있던 英國 및 기타의 나라로 부터 輸入綿絲를 自國産 綿絲로서 驅逐하고 있던 時代이며, 日本의 生産高가 輸入高를 능가한 것이 明治 24 年, 輸出高가 輸入高를 능가한 것이 明治 30 年이라는 것과, 또한 輸出量이 극히 少量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朝鮮市場에의 進出을 불가피하게 하는 産業資本의 욕구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재고하지 않으면 안된다.²⁹⁾ 그러나 吉信肅은 이러한 南とく子氏의 意見은 반듯이 適當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라 하고 있다. 「물론, 紡績業者가 부르조아의 立場에서 主體的으로 戰爭을 열망하는 資料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바와같이, 産業資本的인 要求가 곧 市場確保를 위한 戰爭을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³⁰⁾ 그러나 日本帝國主義史도 말하고 있는바와 같이 「이미 當時에 歐美烈強이 아시아市場에 강력히 進出해, 國內에서 獨占資本主義에로의 轉換에 응해서 國際的 競爭을 격화시키고 있었던때에, 늦게 出發한 日本의 産業資本으로는 自由競爭의 余地는 없었다. 商品市場을 위한 經濟的인 要求, 外國勢力과의 對抗과 排除, 強力한 政治力 및 軍事力의 지원・販賣市場의 獨占的인 支配等, 純經濟的인 범주를 벗어난 諸要因들과 연결해서 고려하지 않으면 전혀 解決할 수 없게 되었다.…… 一部の 産業資本・商業資本의 國外市場 要求는, 이렇게 해서 그

28) 松井清編：前掲書，p.157.

29) 南とく子：日清戦争と朝鮮貿易，歴史学研究第 149 号，p.45.

30) 松井清編：前掲書，p.157.

自身の 内部的 條件의 成熟을 위한 것이 아니고, 外部로부터의 制約條件과, 위로부터의 政治力의 先導의 補充이라는 別個의 要因때문에, 帝國主義的 傾向을 內包하게 되었다.³¹⁾ 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런데 日本에 의한 獨占이 붕괴된 이 時期에, 輸出商品 價格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검토해 보면, 淸과의 競争上 獨占時代에서와 같이 터무니없는 높은 價格으로 朝鮮에 商品을 販賣 할 수 없게 되었다. 우선 外國產 輸出品에 대해서 보면, 1885 年에 日本에서 朝鮮에 兩輸出한 生金巾 10 야드當 價格은 0.64 円 이었는데 日本이 英國으로부터 輸入한 同價格은 0.51 円으로 되어있다. 1893 年에는 前者가 0.78 円, 後者가 0.59 円으로서 兩年度 다같이 約 1.5 倍程度 日本에서 朝鮮에 輸出價格이 높다. 그러나 이것을 獨占時代의 輸出價格과 比較하면, 倍率의 저하는 명료하다. 그런데 生金巾을 대신해서 外國產輸出品에서 多額을 占하게된 石油에 대해서 보면, 1885 年에 日本에서 朝鮮에 輸出價格은 100 錢兩當 12.91 円, 日本이 美國으로 부터 輸入한 同價格은 11.51 円으로서 큰 차가 없으나, 1893 年의 그것을 보면 前者는 17.99 円, 後者는 9.54 円으로서 約 2 倍에 가까운 높은 값이었으며, 淸商과의 競争上 有利한 石油의 再輸出의 增大한 理由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日本產 輸出品 中에서 거의 品質이 一定하다고 생각되는 성냥에 대해서 검토해 보기로 하자. 成냥의 對朝鮮 輸出價格은 1884 年까지는 어느 나라에 대한 輸出價格 보다도 높은 값이었는데, 1885 年에는 오히려 반대로 되고있다. 1885 年의 對朝鮮 輸出價格은 100 다스當 1.94 円인데 對中國 輸出價格은 2.74 円, 1893 年에는 前者가 2.03 円 後者가 2.93 円으로 되어있다. 綿織絲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1893 年에 있어서의 對朝鮮 輸出價格을 살펴보면, 日本內의 都邑價格 28.35 円 보다 꽤 安價로 되어있다. (以上の 數字는 모두 大日本外國年表 및 帝國統計年鑑에 의한 것임). 이것은 海外進出을 위한 非常手段이었던 것은 말할 必要도 없다. 當時 日本內國產의 綿織絲는 英國產의 그것과 비교하면 質이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尙 低價로 輸出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短期間에 英國製品의 競争品으로 登場한 것은 安價하다는 것, 朝鮮과 가깝다고 하는 地理的인 條件, 朝鮮市場의 需要와 嗜好에 대한 적응능력을 갖고 있었던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³²⁾

日本の 對朝鮮輸入: 表 13 에 의거해서 1885 年 및 1893 年의 對朝鮮 主要 輸入品을 살펴 보기로 하자. 어느 해나 다같이 豆類, 쌀, 生牛皮가 三大 輸入品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輸入合計額의 約 82 %를 차지하고 있다는 데는 變함이 없으나, 前 2 者를 合計한 것과 生牛皮와의 地位가 바뀐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 三大 輸入品の 年年의 輸入額과 그것이 輸入合計額에 접하는 比率은 表 14 와 같다.

31) 小山弘健, 浅田光輝: 日本帝國主義史第一卷, p.86.

32) 車耕權: 前掲書, p.569 참조.

〈表 13〉 對朝鮮 主要輸入品 構成

(單位：1,000円)

品 目	1885年		1893年	
	原 価	%	原 価	%
石 花 菜	-	-	20	1.00
葉 材 類	5	1.06	14	0.70
人 参 類	3	0.64	6	0.30
豆	54	11.46	843	42.17
米	27	5.73	470	23.51
五 倍 子	3	0.64	3	0.02
胡 麻 子	-	-	17	0.85
獸 骨	3	0.64	12	0.60
生 牛 皮	305	64.76	322	16.11
類	12	2.55	11	0.55
乾 鱈	1	0.21	156	7.80
海 羅	12	2.55	31	1.55
外 國 産 總 計	467	99.15	1,995	99.76
米	1	0.21	-	-
綿 布 類	-	-	1	0.05
絹 布 及 絹 製 品	1	0.21	2	0.10
日 本 産 總 計	4	0.85	5	0.24
輸 入 合 計	471	100.00	1,999	100.00

資料：松井清：前掲書，p.159.

〈表 14〉 三大輸入品과 그것이 輸入合計額에 占하는 比率

(單位：1,000円)

年 度	米		豆 類		生 牛 皮	
	原 価	%	原 価	%	原 価	%
1885	27	5.73	54	11.46	305	64.76
1886	11	1.95	74	13.14	384	68.21
1887	129	12.77	403	39.90	365	36.14
1888	21	2.02	605	58.06	241	23.18
1889	54	4.24	711	55.85	242	19.01
1890	2,541	58.22	1,341	30.73	173	3.96
1891	2,225	55.17	1,199	29.73	199	4.93
1892	1,349	44.29	1,085	35.62	311	10.21
1893	470	23.51	843	42.17	322	16.11

資料：松井清編：前掲書，p.159.

이 表를 보면 쌀, 豆類가 輸入額의 過半을 점하게 된것은 1887年 以後이며 특히 1890年 以後 쌀 輸入이 急増하여 輸入合計額의 約 90% 가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93年 朝鮮의 輸出市場別 輸出額 比率은 日本 90.9%, 中國 7.9%, 러시아 1.2%로 되어있다.³³⁾여기에서 나타난 事實은, 이제는 朝鮮이 日本의 強制的인 食糧供給地로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植民地的인 食糧供給國이 그러한 바와같이 國內 主食으로 되어 있는 食糧을生産하면서도 食糧不足에 빠지는 디렘다적인 狀態가 朝鮮에서도 일어났다. 이와같은 狀態가 發生한 것은 朝·日의 不平等한 通商條約과 日本의 強압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1883年 朝·日間에 체결한 朝·日通商章程 第37款에는 「만약 朝鮮에 水旱 또는 兵擾等の 事故가 일어나서 國內에 食糧이 결핍할 것을 危懼하여 朝鮮政府가 잠정의으로 米糧의 輸出을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時期에 앞서 1個月 前에 地方官은 日本領事館에 通知하여야 한다. 그럴 때에는 미리 그 時期를 各港의 在留日本商人에 轉示하여 일체 준수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³⁴⁾ 이와같이 긴급시에 米穀輸出 禁止를 日本이 認定하고 있다고는 하나 輸出을 금지하는데 日本과 協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大端히 不平等한 條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不平等한 條約은 防穀事件을 야기 시켰다.

當時 日本人은 함경도로 부터 大豆를 賤값으로 輸入하고 있었다. 1889年 극심한 旱害때문에 農業生産이 減收되어 觀察使 趙秉式은 朝·日通商章程 第37條 規定에 따라서 防穀令을 發布해서 大豆의 防賣禁止 措置를 取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日本은 威鏡道는 旱水害의 被害地域도 아니며 黃豆는 大豊作이라고 主張하면서 防穀令의 철회와 그것에 의한 日本人에 대한 손해배상을 強要했다. 이러한 日本의 抗議에 대하여 어쩔수 없이 朝鮮은 1890年 1月 黃豆放賣 禁止令을 解除했음에도 不拘하고, 日本은 140,000余圓의 손해배상을 要求했다. 또 1890년에는 黃海道 일대의 흉작 때문에 防穀令을 實施했는데 日本은 또다시 손해배상금으로서 69,000余圓을 請求했다. 이에 대해서 朝鮮政府는 外交的인 절충을 모색했으나 日本의 군사적 위협 때문에 결국 防穀배상금으로서 110,000圓을 支拂하지 않으면 안되었다.³⁵⁾ 이와같은 事情은 朝鮮에 米穀이 남아서 米穀을 日本에 輸出했다고 하기 보다는 日本의 事情에 의해서 輸出했다는 面이 強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日本에 의한 貿易獨占이 붕괴한 이 時期에, 對朝鮮 輸出價格은 一部の 商品을 除外하고 서는 저하했는데 輸入의 경우에는 變化가 없었다. 輸入額이 激増한 1890年 以後의 쌀의 對朝鮮 輸入價格을 日本國內 都邑平均米價와 比較해 보면 表 15와 같다. 이 表에 의하면 朝鮮米輸入價格은 國內平均價格 보다 約 10%만큼 安價로 되어있다. 安價한 朝鮮米의 輸入은, 農業의 정제와

33) 崔虎鎮：韓國經濟史, p.216.

34) 車軫樞：前掲書, p.551.

35) 車軫樞：前掲書, p.557.

都市勞働人口의 增大에 의해서 생긴 食糧不足을 完化해서, 日本의 어린 産業資本으로 하여금 資本蓄積의 加速化를 可能케 했다. 日本이 뒤떨어진 農業에도 不拘하고, 또한 그러한 農業을 토대로 해서, 工業을 어느程度까지 急速히 發展시킬 수 있었던 理由中の 하나는 安價한 朝鮮米—後에는 朝鮮植民地米—의 輸入이라고 하는 條件이 存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 時期에 있어서 對朝鮮 輸入貿易을 하게 된 새롭고도 決定的인 特徵이 있다 할 것이다.³⁶⁾

〈表 15〉 朝鮮米 輸入價格과 國內平均米價 (單位: 피클當円)

年 度	輸 入 價 格	平 均 米 價
1890	2.88	3.26
1891	2.40	2.74
1892	2.54	2.80
1893	2.52	2.83

資料: 松井清編: 前掲書, p.160.

四. 結 論

歴史를 돌이켜 보면 日本과 朝鮮과의 貿易은 언제나 日本이 能動的 이었는데 反하여 朝鮮은 受動的이었다. 무역의 양상은 時代에 따라서 다소 다르기는 했지만 이러한 점은 全時代를 통해서 一貫性을 가지고 있었다.

江戸時代의 朝日貿易은, 日本이 主로 生活必需品을 求해서 積極的으로 貿易을 했던데 反하여, 朝鮮은 朝鮮後期에 들어와서 貨幣材料였던 銅等を 除外하면 日本에서 輸入할 日本의 產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日本과의 貿易의 必要性은 거의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日本과의 貿易은 왜구대책의 일환으로서 日本과 貿易을 하게 된 面이 컸다 할 것이다. 허나 이 時代의 兩國關係는 善隣外交關係에 의하여 維持되었다.

그러나 明治時代에 들어와서는 그 內容이 變하였다. 朝鮮보다 한발앞서 開國한 日本은, 近代産業國家를 指向하면서 朝鮮市場을 獨占 할려는 政策을 내세웠다. 따라서 朝鮮을 強制的으로 開國시켜 朝鮮을 工產品의 販賣市場으로서 또한 食糧供給地 나아가서는 原料供給地로 전락시켰다.

朝鮮의 開國으로부터 1890年 以前까지는 英國製品을 갖이고 와서 높은 값으로 팔았다. 그러나 1899年 以後 朝鮮은 日本製品市場으로 되기 始作했다.

36) 松井清編: 前掲書, pp.160 ~ 161 참조.

日本이 朝鮮에서 쌀, 大豆, 生牛, 牛皮等を 輸入해서 日本이 不足하고 있던 食糧供給量을 增加시킴으로 해서 勞動者의 低賃金 維持가 可能했으며, 大量의 金을 輸入해서 外貨不足을 어느 程度 메꿀 수 있었다. 低賃金維持가 可能했다는 사실이야 말로 日本이 近代産業國家의 確立을 보다 빨리 可能케 했던 原動力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1868 ~ 1894 年 까지의 朝日貿易은 不平等한 關係로 展開되었다. 또한 朝鮮의 産業이 뒤 늦었기 때문에 日本은 朝鮮에 二次產品을 輸出하고, 朝鮮으로 부터 食糧 및 原料를 輸入했다. 따라서 이 時代의 貿易 特히 1890 年 以後는 朝日貿易으로 해서 朝鮮은 完全히 日本의 經濟的 植民地로 전락되고 있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 Summary —

**A Study on the Trade of Lee Dynastic End between
Korea and Japan (1868-1894)**

Kim Moon Kwan

The trade of this period between Korea and Japan mainly had been carried out by the necessity of Japan.

Japan totally was an unfavorable balance of trade through this period. The variation of the two countries trade in this period had been largely influenced by the relation between China.

Through this period, Japan had mainly exported industrial goods and Korea had mainly exported agricultural products.

In the beginning of this period, the export goods of Japan was mainly the industrial goods imported from the other countries, but in the end the export goods of Japan was more the industrial goods of her than the goods imported from other countries.

Japan had taken advantage of Korea as the market of supply agricultural products and sale of industrial capital of Japan had been established, the industrial capital of Korea had been destroyed.